

소화도 잘 되고 위장의 효능 UP

전주대 차경희 교수, 고문헌 속 생강 음식 재현... 농산업 전통 지식정보 지역 특산물 마케팅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교수가 고문헌 속 전통지식을 이용해 생강 관련 음식을 재현했다.

차 교수의 전통음식 콘텐츠 개발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2018년 선정된 농진청 농업기술경영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임원경제지' 등 고문헌에 나타난 농산업 전통 지식정보를 지역 특산물 마케팅, 음식문화콘텐츠, 전통시장 홍보, 스토리텔링 개발 등 현대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차경희 교수는 재래종인 완주군 봉동 생강을 이용해 고문헌 속 생강정과(生薑正果), 강란(薑卵), 통신병(通神餅), 노랄병(老辣餅)을 재현하고, 생강찜을 개발했다.

이번 재현은 생강정과, 강란, 통신병, 노랄병 등의 4가지 음식은 1400~1900년대에 생강을 주재료로 활용한 사례다. 생강정과는 저민 생강을 꿀물에 졸인 음식으로, 궁중잔치에 빠지지 않았던 음식이다. 의궤(儀軌), 수운잡방(需雲雜方), 주방(酒方), 해동농서(海東農書), 규합총서(閏闈叢書) 등을 참고했다. 강란은 조선시대 다과상에 자주 올랐던 고급 과자인데, 의궤, 규합총서, 운지 음식법(饌法), 규곤요람, 이씨음식법(飲食法) 등의 기록을 토대로 했다. 통신병과 노랄병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叢書), 정조지(鼎俎志)를 활용했는데, 통신병이라는 명칭은 생강의 더운 성질이 몸을 따뜻하게 해



차경희 교수가 재래종인 완주군 봉동 생강을 이용해 개발한 노랄병.

기를 잘 통하게 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노랄병은 찹쌀가루에 생강즙과 계피가루를 넣고 빻아 삶은 떡을 생강가루가 들어간 팔고 물을 묻힌 떡인데, 소화가 잘 되고, 비장과 위장의 효능을 좋게 한다. 생강과 계피의 성질과 맛은 목은 것일수록 몹시 맵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차경희 교수는 "생강을 활용한 음식이 시중에 많다. 그러나 생강 자체가 매운 맛이 강하기 때문에 설탕을 첨가해 달게 먹는 생강청이 라든지, 생강과 다른 재료를 혼합해 만든 음식

이 현재 대부분이다. 국내의 자료를 찾아봐도 아직까지 생강 자체를 이용한 생강찜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 시행착오에 있지만 생강찜 개발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참여연구진은 전주대학교 변주승·차경희·김건우·서종태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인 예원예술대학교 문운걸, 대종바이오 문두현, 완주문화재단 황경신 선생 등이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년이며, 연구비는 매년 1억원이다. /장은성 기자

도예가 김광길 교수의 11번째 개인전 '연잎 이야기 전'

도예가 김광길 교수(남원국제도자예술연구소 이사장)의 '연잎 이야기 전'이 오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구례 화암사에서 펼쳐진다.



김광길 교수의 연잎 이야기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 오픈을 시작으로, 국내 유일의 영성음악축제 '2019 화암음악제' 특별전으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김광길 교수의 11번째 개인전으로 '연지의 울림', '산사의 아침', '바람이 연잎 절뚝' 등 약 20점의 작품과 설치작품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전시가 특별한 것은 연잎이라는 단일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연지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친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잎을 단일소재로 하고 있지만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잎과

인어의 표면에서 회오리치고 물결치는 컬러의 다채로운 표정이 무광과 조화돼 묘한 무드를 연출한다. 작가는 끈임 없는 변화를 시도 중이며, 그가 빚은 작품은 쓰이는 용도보다는 순수미술로의 접근으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화암사 성보박물관 보제루 벽면에 연잎을 설치해 또 다른 연지를 연상할 수 있다.

화암사 주지 초암 덕문스님은 "김 교수의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도예작품이 아니라 청량한 회화작품을 보고 있는 착각을 일으켰다"며, "기존 도예작업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실험해 기어코 변화하는 그의 노력이 숨어있어 한번 더 작품을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는 "공간으로 쏟아지는 형과 색의 넘실거림, 올 여름 유난했던 더위를 살며시 밀쳐내고 소박하게 찾아들어온 가을 풍경의 선선함과 더불어 가장 인상적인 계절을 향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올해도 큰 수확... 구도심 활성화 · 문화도시로 위상 제고

김제시가 2020년도 문화재 공모사업에 아쉽게 도전한 결과 문화재 여행 등 구체적인 공모사업만 4개 분야에 선정되어 큰 수확을 거두었다.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문화재 여행사업'이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 이는 국가사적지인 '김제군 관아와 향교' 일원이 점차로 구도심화되고 슬럼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문화재 활용을 통한 구도심의 활성화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김제시의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닫혀있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열어놓고 문화재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생생한 문화재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재 생생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점차로 기능을 상실하여 박제화 되어가는 옛 교육기관인 향교 및 서원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도 선정되었다.

이밖에도 전통산사 문화재를 통해 옛 산사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이 선정되어, 문화재청의 주요 공모사업은



김제시가 2020년도 문화재 공모사업에 아쉽게 도전한 결과 문화재 여행 등 구체적인 공모사업만 4개 분야에 선정되어 큰 수확을 거두었다.

대부분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김제시는 이렇게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큰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비결에 대해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문화재의 보존과 함께

이를 활용하여 김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김제시의 의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문화재 담당자의 열정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마한교육문화회관이 내일 본관 야외공연장과 잔디밭에서 '한 밤의 버스킹'을 개최한다.

가을 밤의 감성 '가득'

마한교육문화회관, 내일 '한 밤의 버스킹' 개최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19일 저녁 6시 30분 본관 야외공연장과 잔디밭에서 '한 밤의 버스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밤의 버스킹'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우쿨렐레 등 4개의 교육생 공연과 '책이랑 달이랑 책놀이' 등 6개의 체험이 진행된다.

교육생 공연은 우쿨렐레, 기타, 플루트, 발리댄스 4개의 팀이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가을이 오면' 등 가을 밤의 감성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우쿨렐레 공연을 시작으로 경쾌한 기타 공연과 G선상의 이야기, '천개의 바람이 되어' 등 플루트 연주가 이어진다.

특히 지난 해 관람객들에게 감동한 인상을 남긴 어린이 발리댄스 무대도 꾸며진다. 8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발리댄스팀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공연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책 읽기를 만날 수 있는 6개의 체험도 열린다. △책이랑 달이랑 책놀이△이야기 병풍책 만들기 △쿠기 만들기 △책속 한 줄 △독서 서약 △도시 추천 키오스크 체험이 운영된다.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20명을 추첨해 현장에서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